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Economic Stress, Marital Conflict, and the Quality of Life under Economic Crisi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이 미 숙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고 선 주
미네소타대학교 가족학과
박사과정 권 희 경

School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Lee, Mi-Sook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 Koh, SeonJu

Dep't. of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Doctoral Course : Kwon, Hee-Kyung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I.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부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economic stress & marital conflict on the quality of life under economic crisi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36 couples during May and June 1998, when the Korean economy was under the control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Many couples reported the instability of job and the experience of economic strain events. However, the perceived level of marital conflict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not so bad. Husbands perceived economic stress and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quality of life higher than wives did. The path analysis showed gender difference in the perceived economic stress as well as in the indirect effect of economic strain events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economic stress and marital conflict. In addition, family income directly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for husbands, but not for wives.

I. 연구의 필요성

지난 1990년대는 거품경제로 인한 소비증가와 빈부 격차, 외환관리의 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는 의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MF 시대 경험'은 전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97년 말부터 시작된 원화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6천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주도로 행해진 구조 조정은 고용 조정과 임금 삭감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고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았다. 결국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 위기는 가족이 붕괴, 해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볼 때,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심리적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한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경험한 경제위기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서 각 가족의 생활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IMF 이후 발표된 통계들은 가족폭력이나 가족해체 등의 가족위기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부부애를 강조하는 현대의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는 모든 가족관계의 핵심이며,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가족을 이끌어 가는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자 역할은 남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었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직업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양자 역할을 당연시해왔던 남성들과 그 배우자간에 부부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유용한 자원

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위기는 가족원의 개인적인 욕구 해결과정에서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가족의 적응은 균형적 상호작용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 가족체계, 지역사회 가운데 한 단위의 요구를 다른 단위가 충족시키는 상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McCubbin & Patterson, 1983, 최연실, 1996에서 재인용)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념화된 적응적 결과가 주로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 측정을 통한 심리적 복지, 혹은 가족의 복지로 나타난다(최연실, 1996). 따라서 경제적 위기가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은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질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1) 통계청이 발표한 '97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백 28만 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3%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7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고, 특히 지난해 4분기 소득 증가율은 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소비지출도 감소해 97년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백 45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 통계 작성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4분기의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0.8%가 감소해 소비지출액의 절대액수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지난해 전체로 1.75% 증가에 그쳐 81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IMF 한파가 불어닥친 4분기에는 실질 소득이 4.45%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치인 70.4%로 떨어졌다(중앙일보, 1998. 3. 6.).
- 2)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서울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상담결과를 보면, 상담전화 내용중 가정폭력이 가장 많았는데,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 이후 구타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 상담소가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1998년 1분기에는 이혼 상담이 지난 해의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하였다(중앙일보, 1998. 5. 21.).

한국 사회가 경험한 경제위기의 엄청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가족적 시각에서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곽인숙외, 1999; 박명희, 1998; 안병철, 1998; 조은숙·박혜인, 1998; 최혜경, 1998).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에 대한 검증보다는 원론적 관심과 실태 파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 대상이 실직자 등으로 한정되거나, 물질적 측면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초유의 경제 위기가 실제로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론적 모형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이 가족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즉,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결과들과 다른 차원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인 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의 발생빈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해서 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로 모형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의 가족을 위한 자원을 탐색하고 가족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경제적 스트레스와 생활의 질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는 생활의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부각된 주제이다. 삶의 질 연구는 개인의 생활 경험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활만족감이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고정자, 1998). 이러한 생활의 질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문

화, 시간, 연령,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기준 또한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조건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보선·임정빈, 1992; 박미금, 1994; 채정숙외, 1997; 황덕순, 1993). 즉, 경제적 조건이 기본이라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경우보다 이러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력이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전면적으로 부각되기보다는 생활의 질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취급되었다. 즉,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안정감,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찰되었을 뿐,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현재까지의 우리 상황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한 전 사회적인 지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원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더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는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로서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의 예측되고 규범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발달적 스트레스와 달리 가족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자원이 없이 닥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노영주의 역, 1995). 즉,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는 가족에게 있어 부정적인 파급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 동안 발표되었던 각종 조사에서도 경제위기는 다른 어떤 사회적 변화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IMF 이후의 소비 의식 및 행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2%가 외식비와 식료품비 등을 아껴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앙일보, 1998. 3. 4), 통계청이 발표한 1998년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6개월간 13.7%가 감소, 중

산층의 경제 기반이 허물어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1998. 6. 12). 그런데 이는 생계를 맡고 있는 가장이 직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여서 실제로 실업자 가정을 포함한 도시 중산층의 소득 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객관적 및 주관적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적 위기는 전 사회에 부과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지각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즉,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지표가 더 결정적이라는 데에는 학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보선·임정빈, 1998; 고정자, 1998; 박미금, 1994; 채정숙외, 1997; :Voydanoff & Donnelly, 1990). 또한 스트레스생활사건은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최연실, 1996)는 연구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각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와 관련한 주관적인 지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먼저 개별 가족이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IMF 시대의 경제위기가 개별 가족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제상황에 대해 지각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80년대에 저성장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와 가족의 대처방식 및 생활의 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Danes & Rettig, 1993; Conger et al., 1990; 1999; Lorenz et. al., 1991; Pittman & Lloyd, 1988; Voydanoff & Donnelly, 1990; Ulrichson & Hira, 1985; Windle & Dumenci, 1997).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적 상태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곧 문을 닫을 것이 확실시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나, 계속적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rson et al., 1994)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직업적 불안정성의 지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대한 부부의 지각 일치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Berry & Williams, 1987)이므로, 부부간의 지각 차이는 우리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과정을 파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의 가족이 경험한 경제적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수준과 더불어 이에 대한 부부간의 지각차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2. 부부갈등과 생활의 질

생활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객관적인 생활 환경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주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개인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생활의 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과정은 직접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의 질에 영향을 준다(채정숙외, 1997).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이다.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족생활의 일부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정자, 1998; 이희정·이숙현, 1995; Guelzow et al., 1991; Windle & Dumenci, 1997). 특히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나 갈등, 친밀감 등의 요소로서 부부관계를 측정하여 생활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대체로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독립된 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불만족은 부부갈등으로 측정되어 왔다. 이러한 부부갈등에 대한 개념은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즉, 이익이 상충하는 가족원들간에 서로 다른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쟁취의 과정으로 보는 갈등론, 오히려 갈등을 긍정적 입장에서 보고 가족체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둔 기능주의적 입장, 그리고 가족관계 측면에서 갈등을 정의하고 가족원들간의 심리적 측면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개인의 심리상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욕구 충돌의 설명에 기초한 가족관계 측면의 갈등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가족갈등이 가족원 각자의 개인적인 욕구나 차이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투쟁이든 조절이든지간에 가족원 서로의 욕구에 맞도록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이경희, 1998).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부부갈등이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불만족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경향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적 생활에 대한 불안이나 직업불안정성, 그리고 누적된 스트레스들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도나 주관적인 재정복지감 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들(고보선·임정빈, 1992; 고정자, 1998; 박미금, 1994; 황덕순, 1993; Berry & Williams, 1987; Conger et al., 1990)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여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축으로 하여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위기 상황 관련변인들이 부부갈등 및 이를 통한 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이 연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요인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통하여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던 위기 상황하에서 자녀교육기의 부부가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지각을 알아보았다. 즉, 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 자녀교육기의 부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런 경제위기 관련상황의 평가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부부갈등, 그리고 생활의 질에서 부부간의 차이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부부의 인식에 차이가 나는가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적 관련요인들이 부부간의 갈등과 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검증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생활의 질을 파악하고, 부부 갈등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그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경제위기 상황하의 가족을 위한 자원을 탐색하고 가족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부부가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부부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생활의 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부부가 지각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생활의 질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부가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은 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소득(부부합산)과 직업안정성,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사건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부갈등, 그리고 생활의 질을 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한 후 경로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방법

연구의 수행범위와 방법으로, 측정도구의 구성,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분석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도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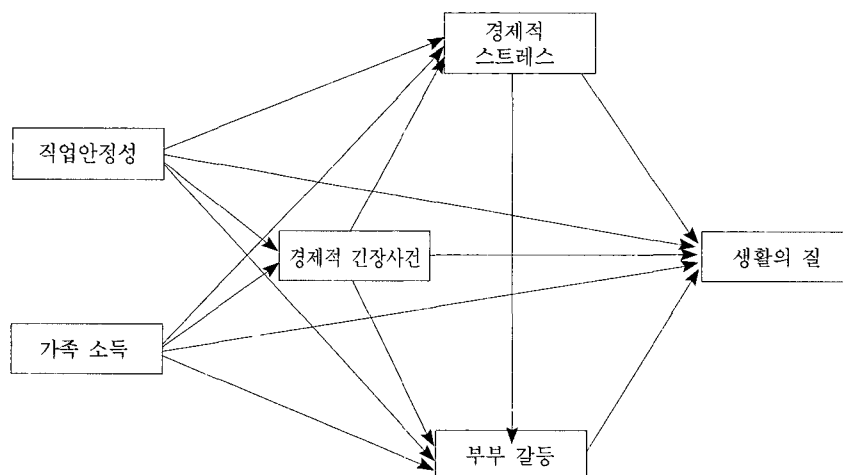
1) 생활의 질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척도는 Olson과 Barnes가 제작한 생활의 질 척도를 수정한 최연실(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가족, 친구, 친척과의 관계, 자신과 다른 가족원의 건강,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공간과 시간, 가족의 경제적 복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묻는 것으로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4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경희(1998)가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개인 특성 영역, 부부관계 특성 영역, 공동생활 특성 영역, 제 삼자 특성 영역 등 각 영역 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이다. 개인 특성 영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건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부부관계 특성 영역은 대화, 부부 간의 성, 애정이나 관심, 외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동생활 특성 영역은 금전관리·소비, 가사노동분담, 주거·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예: 휴일 나들이)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 삼자 특성 영역은 친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 등), 자녀양육, 사회적 활동(동창회, 종교활동 등), 직업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림 1〉 생활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원래 이 척도의 응답 방식은 현재 부부의 생활에서 부부가 소지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 이후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IMF구제금융 이후로 시점을 제한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는 Cohen 등(1983)이 개발하고, Larson 등의 연구(1994)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특정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4로 나타났다.

4) 경제적 긴장 사건

경제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긴장 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Conger 등(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적 긴장사건 척도와 Hilton과 Devall(1997)이 작성한 가족경제 긴장사건 척도를 번역, 우리 실정에 맞는 문항을 발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금 지불에 있어서의 어려움, 가계수지를 맞추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재정적 문제 인식으로 인한 행동반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적응 등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는 형식이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부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의 유무로서 판단하게 하였으며 총점은 1점부터 10점까지 분포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긴장을 불러오는 사건을 많이 경험했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5로 나타났다.

5) 직업안정성

직업안정성은 남편이 평가한 자신의 직업안정성이다.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1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아주 많이 불안정하다고 느낀다'(1점)로부터 '아주 많이 안정적이라고 느낀다'(7점)에 이르는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중에서 가족생활주기상으로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발달주기상에서 볼 때, 신혼기와 자녀출산기는 커다란 경제적 위기(Life Cycle Squeeze)를 맞게 되는데(Voydanoff, 1990), 이 시기는 특히 가족자원보다 지출이 많고, 가족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신혼기와 자녀출산기는 부부로서의 적응과 부모로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적 위기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출압박의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자녀교육기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가와 거주계층을 고려하였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초·중등학교를 통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였다. 1998년 7월과 8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수거된 502부의 설문지 중에서 부부쌍이 아닌 경우와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236쌍(총 472명)이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36쌍 빈도(%)

남편의 연령		부인의 연령	
30대	71 (30.1)	20대	6 (2.5)
40대	121 (51.3)	30대	108 (45.8)
50대	36 (15.3)	40대	103 (43.6)
무응답	8 (3.4)	50대	10 (4.2)
		무응답	9 (3.8)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전문·관리직	50 (21.2)	전문·관리직	1 (0.4)
사무·기술전문직	63 (26.7)	사무·기술전문직	23 (9.7)
자영·판매	64 (27.1)	자영·판매	42 (17.8)
기술·생산	41 (17.4)	기술·생산	7 (3.0)
기 타	15 (6.4)	전업주부	141 (59.7)
무응답	3 (1.2)	기 타	22 (9.3)
		무응답	0 (0.0)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8 (3.4)	중졸 이하	19 (8.1)
고졸	70 (29.7)	고졸	103 (43.6)
대졸	119 (50.4)	대졸	100 (42.4)
대학원졸	35 (14.8)	대학원졸	4 (1.7)
무응답	4 (1.7)	무응답	10 (4.2)
결혼지속년수		자녀 수	
10년 미만	24 (10.2)	1명	28 (11.9)
10년~14년	73 (30.9)	2명	161 (68.2)
15년~19년	52 (22.0)	3명	37 (15.7)
20년~24년	53 (22.5)	4명	8 (3.4)
25년 이상	34 (14.4)	무응답	2 (0.8)
무응답	0		
첫 자녀 연령		막내 자녀 연령	
10세 이하	82 (34.7)	10세 이하	105 (44.5)
11세 -15세	55 (23.3)	11세 -15세	48 (20.3)
16세 -20세	63 (26.7)	16세 -20세	53 (22.5)
20세 이상	31 (13.1)	무응답	30 (12.7)
무응답	5 (2.1)		

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는 각 변수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은 쌍체 t검증을 통해서 부부간 지각차이를 규명하였다. 〈연구문제 4〉의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밖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먼저 〈연구문제 1〉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우리의 가족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인 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직업 안정성

부부 모두에게 질문하였으나 부부의 응답에서 의

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양자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빈도분포 표를 제시하였다.

직업안정성에 대한 남편의 지각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직업안정성에 대해 아주 많이 불안정하다(1점)로부터 보통(4점), 아주 많이 안정적이다(7점)까지 응답하게 하였을 때 평균은 3.88점(표준편차 1.52)으로 나타나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한 225명중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65명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6%이며, 불안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9.6%로 나타나, 안정적이라는 응답보다는 불안정하

다는 응답이 약간 많은 편이었다. 즉,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안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안정하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사가 행해진 시점이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 여파가 가장 광범위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긴장사건

총 10개의 경제적 긴장사건 중에서 한번이라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부인의 경우에는 평균 6.67개(표준편차 2.62)를, 남편은 평균 6.97개(표준편차 2.59)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부부간의 응답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쌍체 t= 1.77).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였는가를 보기 위하여 각 사건별로 그러한 경험을 한 응답자 비율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빈도수가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중요한 물건구입을 나중으로 미룬 경우로 거의 전원이 그러한 경험을 하였으며, 다음에는 가계수지를 맞추는 데의 어려움, 돈 문제 때문에 식구들이 다툰

<표 2> 직업 안정성

직업안정성 정도	빈도 (%)
아주 많이 불안정하다.	17 (7.6)
상당히 불안하다	23 (10.2)
조금 불안하다	49 (21.8)
보통이다.	65 (28.9)
조금 안정적이다.	31 (13.8)
상당히 안정적이다.	33 (14.7)
아주 많이 안정적이다.	7 (3.1)
합 계	225 (100)

<표 3> 경제적 긴장사건

경제적 긴장사건	부 인	남 편
각종 요금을 제때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169 (71.9)	184 (78.3)
가계수지를 맞추는데 문제가 있었다.	213 (90.3)	214 (92.1)
돈 문제 때문에 식구끼리 다툰적이 있다.	184 (78.3)	186 (79.1)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다.	123 (52.8)	131 (56.2)
예금이나 보험을 해약했다.	166 (70.6)	174 (74.0)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뤘다.	224 (94.9)	224 (95.3)
병원가는 것을 미룬적이 있다.	179 (76.2)	174 (74.4)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꾸는 적이 있다.	148 (63.2)	165 (70.8)
정부보조금(실업수당등)을 받은 적이 있다.	29 (12.3)	38 (16.2)
각종 요금(전기료, 관리비, 신용카드대금등)을 제때 내지 못하거나 그럴뻔한 적이 있다	133 (56.4)	146 (62.1)

* 각각의 사건에 대해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원가는 것을 미룬 경우, 각종 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한 경우, 예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경우도 많은 부부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생활의 질의 전반적 경향과 부부간 지각차이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녀교육기의 부부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생활의 질을 살펴보았으며, 부부간의 지각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쌍체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에 나타나 있다.

우선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중간값(42점)을 약간 웃돌고 있어 부부 모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녀교육기의 부부들은 직업 및 경제적 곤란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간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특히 부양자 역할에 대한 압력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의 경우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부부사이의 언쟁이나 냉전, 또는 싸움 등의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경우, 평균 점수가 중간값(48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부부갈등의 정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부부간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부가 느끼는 부부갈등의 정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 자체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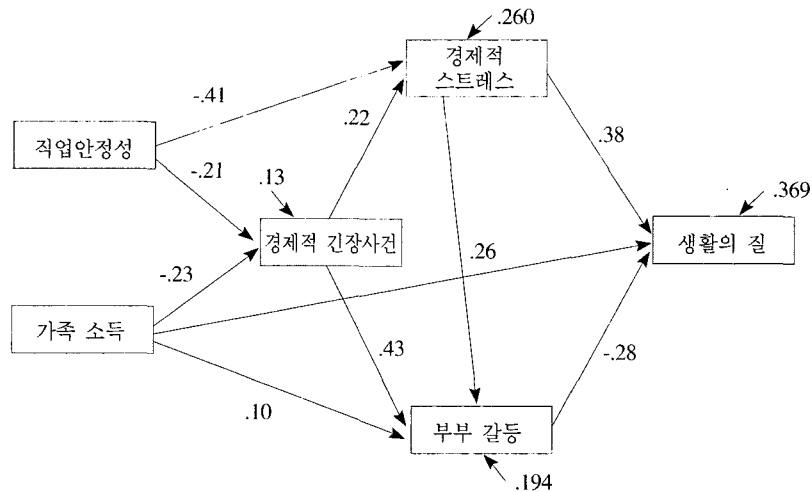
그밖에, 부부갈등의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개인 특성 영역은 평균 10.19, 부부관계 특성 영역은 9.15, 공동생활 특성 영역은 9.36, 제 삼자특성 영역은 9.41로 나타나 부부갈등의 세부영역간에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생활의 질의 경우, 부부 모두 중간점수인 60점을 넘고 있어 보통정도의 만족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의 질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로서 청소년자녀기 가족을 연구한 최연실의 연구결과(1996)에 따르면, 남편은 68.24점, 부인은 66.5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부부 모두 3점 정도의 하락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비교로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두 연구 모두 수도권에서 자녀교육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측정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제위기 상황에서 측정된 본 연구의 경우 생활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편은 65.08점, 부인은 63.64점으로, 부인보다 남편의 생활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6, p<.05$). 물론 결혼만족도나 생활만족도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편의 생활의 질이 더 높

〈표 4〉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생활의 질과 부부간 지각 차이

변 수	남편/부인	N	평균 (범위)	표준편차	t값
경제적 스트레스	남 편	220	43.42 (14-70)	5.84	2.20*
	부 인	220	42.41 (14-70)	6.28	
부 부 갈 등	남 편	209	38.30 (16-80)	8.93	.53
	부 인	209	38.98 (16-80)	9.54	
생 활 의 질	남 편	194	65.08 (20-100)	10.17	2.06*
	부 인	194	63.64 (20-100)	10.60	

* $p<.05$



〈그림 2〉 남편의 생활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게 나타나고 있지만(고보선·임정빈, 1992; 박미금, 1994),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남편에게 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이 남편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 계속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생활의 질에 대한 남편의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남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생활의 질 사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변수들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4. 부부의 생활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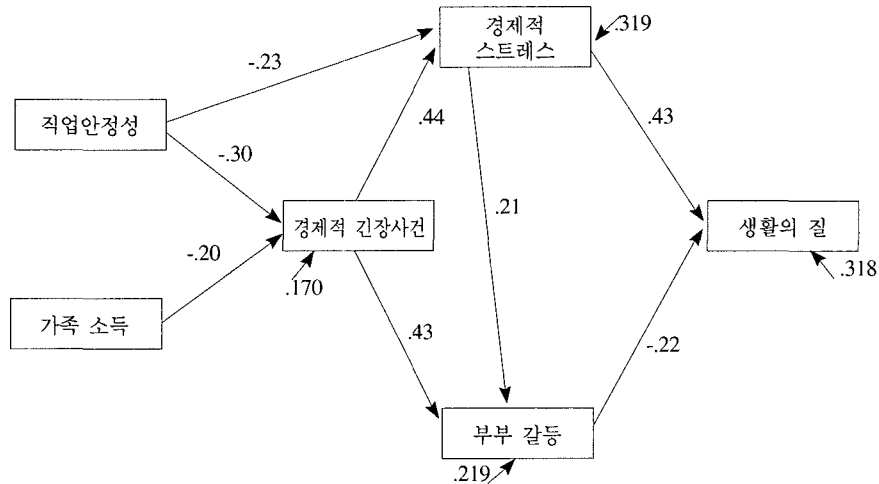
〈연구문제 4〉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델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경우를 각기 분리하여 경로분석³⁾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경로모형은 가족 소득(부부합산)과 남편의 직업안정성, 부부가 지각한 경제적 긴장사건들,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부가 지각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가 느끼는 부부갈등, 그리고 부부의 생활의 질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부부간에 생활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 남편과 부

인 모델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2〉는 남편의 직업안정성과 가족소득, 남편이 지각한 경제적 긴장사건과 경제적 스트레스, 남편의 부부갈등과 생활의 질로 구성된 모델이며, 〈그림 3〉은 가족소득과 남편의 직업안정성, 그리고 부인이 지각한 경제적 긴장사건과 경제적 스트레스, 부인의 부부갈등과 생활의 질로 구성된 모델이다.

남편의 생활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편의 생활의 질은 경로모형을 통하여 총 분산의 36.9%를 설명하고 있다. 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그리고 가족소득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상당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직업안정성과 가족

3) 〈연구문제 3〉에서 밝혀진 대로 남편과 부인의 생활의 질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편과 부인을 각기 분리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편모델과 부인 모델에 적용된 변수들의 상관계수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수는 부부 자신의 응답점수를 두 모델에 각각 적용하였으나, 직업안정성의 경우에만 남편의 응답을 두 모델에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부인의 생활의 질에 대한 경로모형

소득은 경제적 긴장사건들을 직접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제적 긴장사건 자체는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활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소득은 남편이 느끼는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긴장사건과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가족이 경험한 경제위기 상황이 경제적 긴장사건을 야기한다고 볼 때, 이러한 경제적 긴장사건을 줄여주는 것은 직업의 안정성과 가족소득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긴장사건을 줄여줄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감소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부인의 생활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부인의 생활의 질은 경로모형을 통하여 총 분산의 31.8%를 설명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생활의 질에 대해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남편 모델과 비교해볼 때, 차이점은 부인의 경우 남편에 비하여 가족소득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남편의 경우 가족소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전체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이 높은 것

〈표 5〉 남편의 생활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 분석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업안정성	-	.19	.19	32.38*** R ² = .369
가족소득	.26	.05	.31	
경제적 긴장사건	-	-.20	-.20	
경제적 스트레스	-.38	-.07	-.45	
부부갈등	-.28	-	-.28	

*** p <.001

〈표 6〉 부인의 생활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분석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업안정성	-	.19	.19	44.14*** R ² = .318
가족소득	-	.06	.06	
경제적 긴장사건	-	-.28	-.28	
경제적 스트레스	-.43	.00	-.43	
부부갈등	-.22	-	-.22	

***<.001p <.001

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 소득이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으며 간접효과도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 남편모델과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의 분석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남편들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부양자역할에 대한 기대와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사건들은 남편 모델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생활의 질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긴장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소득과 직업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IMF관리체제를 경험할 당시의 가족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교육기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경제적 곤란상황과 부부갈등,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생활의 질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곤란상황과 가족생활을 검토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부부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전반적인 현황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간의 관계는 경로모형을 구성하여 중회귀분석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IMF관리체제 이후 가족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직업안정성의 경우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응답보다는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적 긴장사건을 경험하는 빈도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이러한 직업안정성과 경제적 긴장사건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들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가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일관된 연구결과들(Danes & Rettig, 1993; Conger et al., 1990; 1999; Lorenz et. al., 1991; Pittman & Lloyd, 1988; Voydanoff & Donnelly, 1990; Ulrichson & Hira, 1985; Windle & Dumenci, 1997)과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은 부부갈등에서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은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며 경제적 긴장사건을 많이 겪는 등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부정적 상태에 처해 있음에 비해, 부부갈등은 평균적으로 볼 때 우려할 만큼 갈등적인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상황의 발생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부부갈등 자체가 크게 부정적인 상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긴장사건 이외에도 가족이 지닌 대처양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동일한 경제적 곤란상황에서도 부부간에 응답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 보이는 경제적 긴장사건의 경우에도 대체로 부인보다 남편의 경우에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생활의 질에 대한 응답에서도 남편과 부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부인보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부관계 및 일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고보선·임정빈, 1992; 박미금, 1994; 최연실, 199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부과하고 있

는 부양자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를 남편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로모형에서 가족소득이 부인보다는 남편의 부부갈등과 생활의 질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남성에 대한 부양자역할의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본 연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부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로 미치는 것은 경제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었다. 즉, 객관적인 경제적 긴장사건이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과 부부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이들이 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심보다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과 개별 가족이 지니고 있는 자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또 그 요인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첫째, 비록 경제위기 상황일지라도 부부갈등 내지 생활의 질은 그다지 부정적 상황에 있지 않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기보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경제위기가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외국의 연구들(Conger et. al., 1990; 1999; Lorenz et. al., 1991)이 대부분 자기 보고와 배우자의 보고, 그리고 제 3자의 관찰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연구의 방법적인 한계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없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경제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 여파가 가장 광범위했던 시점이라는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얻은 결과

들은 제한적인 정보력만을 갖는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정책적인 면에서, IMF이후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프로그램 등은 저의 경제적인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긴장사건보다는 이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생활의 질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법칙에 의거한 접근보다는 생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긴장사건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의 지각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족이 지닌 자원에 대한 연구가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위기 상황이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을 불러오고 가족들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자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족의 심리적 대처자원을 강화하는 가족적 맥락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청소년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Conger et. al., 1997)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비록 단시간에 걸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학문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경제위기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가족이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앞으로의 우리 가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경로 분석 결과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가족의 지각 반응과 결과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특정가족에 대해 지원을 계획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보선·임정빈(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 59-78.
- 2)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도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3)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4) 광인숙·송효숙·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5) 노영주·서동인·원효중역(199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Galvin, K.M., Brommel B.J., 하우 출판사, pp.341-367.
- 6) 박명희(1998). 국가경제위기-가정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7)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8) 안병철(1998). 실업과 가족 -실업의 영향, 매개요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9)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0)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11) 조은숙·박혜인(1998).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대구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39-154.
- 12)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7).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대한가정학회지*, 35(4), 243-255.
- 13)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4) 최혜경(1998). 실직자 가정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 15)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1.
- 16) Berry, R.E. & Williams(1987).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17) Cohen, S., Kamrack, T., & Mermelstein, R.(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18) Conger, R.D., Elder., G.H.Jr., Lorenz, F.O., Conger, K.J., Simons, R.L., & Whitebeck, L.B., Huch, S., & Melby J.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643-656.
- 19) Conger, R.D., Conger, K.J., & Elder, G.H. Jr.(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J. Brooks-Gunn & G. DUNca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288-310).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20) Conger, R.D., Reuter, M.A., Elder, G.H.Jr.(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4-71.
- 21) Danes, S.M. & Rettig, K.D.(1993). Farm wives' business and household decision involvement in times of economic st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2(3), 307-333.
- 22) Guelzow, M.G., Bird, G.W., & Koball, E.H.(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a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 23) Hilton, J.M. & Devall, E.L.(1997). The family economic strain scal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instrument with single and two 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8, 247-271.
- 24) Larson, J.H., Wilson, S.M., & Belley R.(1994).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marital insecurity on marital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3, 138-143.
- 25) Lorenz, F.O., Conger, R.D., Simon, R.L., Whitebeck, L.B., Elder, G.H.Jr.(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variance problem in the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75-388.
- 26) Pittman, J.F., & Lloyd S.A.(1988). Quality of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3-67.
- 27) Voydanoff, P. & Donnelly, B.W., & Fine, M.A.(1990).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
- 28)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4.
- 29) Ulrichson, A.M. & Hira, T.K.(1985). The impact of financial problems on family relations. *Family Perspective*, 19(3), 177-187.
- 30) Windle, M. &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 income couples : a multi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625-634.
- 31) 중앙일보 1998. 3. 4.
 _____ 1998. 3. 6.
 _____ 1998. 5. 21
- 32) 조선일보 1998. 6. 12

부 록

단순상관계수표

남편모델

	생활의 질	직업안정성	가족소득	경제적긴장사건	부부갈등	경제적스트레스
생활의 질		.35	.32	-.37	-.36	-.51
직업안정성			.30	-.37	-.28	-.47
가족소득				-.35	-.02	-.16
경제적긴장사건					.43	.42
부부갈등						.23

부인모델

	생활의 질	직업안정성	가족소득	경제적긴장사건	부부갈등	경제적스트레스
생활의 질		.36	.24	-.44	-.32	-.54
직업안정성			.32	-.36	-.22	-.43
가족소득				-.30	-.14	-.21
경제적긴장사건					.38	.58
부부갈등						.27